

## 해외환자유치 대상 국가(몽골)의 한국의료 인식도 및 이용의사 현지조사

### 1.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대상 국가 현지조사 개요

- ☐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여 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은 범부처 신성장동력과제로 선정된(2009. 5) 이후 초기 시장형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차원에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 한국의료브랜드인 'Medical Korea' 개발·홍보,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등의 정책적 효과로 유치기관 등록은 총 1,806개소로 증가하였으며(2010. 5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60,201명(2009. 12 현재)에 이르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 ☐ 의료관광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가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보인 점은 고무적이나, 관광 및 휴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한국의료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 의료인력 및 최신 시설의 확보, 원활한 의사소통, 적정 비용의 산정, 이용환자들을 위한 사후 관리 등에서는 아직 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임.
- ☐ 해외환자유치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잠재적 의료수요 창출국가'들에 관련된 정보수집이 필요함. 현재 관광공사 등에서 일본과 중국 및 극동러시아, 미주 지역 등에 대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신흥시장(국가) 선점을 위한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고 있음.
- ☐ 몽골(Mongolia)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잠재적 수요국가라 할 수 있어서 해외환자유치사업에서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반면, 몽골 국민들의 해외의료 활

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임.

- 몽골 경제는 1990년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꾸준히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 말 현재 전체 기업 및 법인 중 약 84%를 민간부문이 차지할 정도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장려되고 있음. 2009년 한국과 몽골의 교역액은 1990년 수교 당시에 비해 약 6.3배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대상국임.
  - 몽골에는 이미 한국의 병원 2개소(연세친선병원, 송도병원)가 개원·진료중이며,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현지인들의 신뢰수준이 높은 편임.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비롯된 韓流 파급과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등 국가이미지가 긍정적임.
  - 2009년 몽골의 1인당 GDP는 1,560\$ 수준이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국의 낙후된 의료시설과 장비, 부족한 약품,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요구 등으로 선진 국가에서의 진료 요구도가 높음.
  - 최근까지 몽골 국민들의 해외의료 활용은 주로 중국 및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내륙국가의 특성상 주변 국가로의 교통 편리성 및 비자 발급의 편리성(중국에 무비자 입국 가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에 따른 근로 우려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 및 보호자의 의료비자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음(2009년 현재 국내 체류 몽골인 중 불법체류를 40.0%로 추정<sup>1)</sup>)
-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극동 러시아 등에 비해 몽골 등 신흥 수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전조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현지에서의 출장 활동을 수행하였음.
- 현지조사
    - － 몽골 현지 의료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 조사내용: 평소 몽골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외국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몽골 국민들의 외국에서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한국의료에 대한 인식, 한국의료 이용의사 등

1) 법무부, 200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0.

- 현지 의료인 68명과 일반인 30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입력 및 분석 작업 중이며,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임.
- 해외환자 유치 관련 몽골 현지 주요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안과 전문병원(ORBITA LLC 병원)
  - 간질환 전문병원(SAGDARSUREN CLINICAL 병원)
  - 몽골 제1종합병원 및 제2종합병원
  - 몽골 주재 한국대사관
  - National Life(몽골 민간보험회사)
  - 울란바타르 송도병원
  - 몽골 국립암센터
  - 몽골 국립아동병원

## 2. 주요 방문 기관별 의견 교환 내용

### □ ORBITA LLC 병원

- 1994년 건립되어 하루 평균 약 150여명이 이용하는 ORBITA LLC 병원은 몽골의 대표적인 안과 전문병원으로서 병원장은 과거 몽골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하였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
- 원래 몽골인들은 시력이 좋고 안질환이 적은 국가였으나 최근들어 안과 분야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건조한 날씨와 공해 등으로 인해 특히 겨울철에 결막염과 안압 저하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몽골 고등학생의 약 22%가 시력이 나빠져서 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2년 WHO와 몽골 보건부, ORBITA LLC 병원은 몽골인들의 시력감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도인 울란바타르 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안 의사를 파견하고, 안질환이 있는 지방 주민의 경우 도시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
- 증가하고 있는 안과 환자 수에 비해 안병원 발전이 미흡한 수준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안과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음.
  - 현재 몽골에서 면허를 받은 안과 의사는 243명이나 실제 몽골의 진료 현장

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13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 또는 안경제작 회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음.

- 외국에서 안과질환 치료를 받는 몽골인은 1년에 약 50~6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이용하고 있음.
- 한국의 안과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도 있음. ORBITA LLC 병원의 경우 한국의 김안과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어서 교류가 있음.
- 안과질환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도 해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몽골국민들, 특히 부유층의 경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비스 수준과 최신 장비 및 시설의 보유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해외에서의 진료 확대와 한국 병원의 몽골 진출 등의 현상을 보면서 몽골 정부가 보건의료 자원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 SAGDARSUREN CLINICAL 병원

- SAGDARSUREN CLINICAL 병원은 민간병원으로서, 간질환 치료 분야에서 몽골의 가장 대표적인 병원 중 한 곳임.
- 몽골 국민들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는 간염과 간암 등 간질환임.
  - 각종 암 가운데 간암의 인구 10만명 유병율은 54.0명(2007년)으로 가장 높은 유병율을 기록하고 있음. 2위인 위암(20.1명), 3위인 식도암(10.5명), 4위인 자궁경부암(10.3명) 등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몽골의 경우 국토는 넓고 인구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어서 간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
  - 몽골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간질환 조기 검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 간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현대화된 장비와 기술이 필수적이거나 비싼 가격과 구동 기술이 부족하여 병원마다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간질환 뿐만 아니라 몽골 의료체계 전반적인 문제로서, 이로 인해 외국에서 진료를 받는 몽골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로 진료받는 외국은 중국임.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하여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의 진료도 원하고 있음.
- 한국에 대해서는 몽골 의사의 연수와 장비 및 기술 지원, 요즘 관심을 받고 있

는 한국 의학에 대한 교류 등을 기대하고 있음.

□ 몽골 제1종합병원 및 제2종합병원

- 제1종합병원 및 제2종합병원은 몽골의 대표적인 국립병원으로서, 제1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반면 제2병원은 고위 관리, 정치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병원 건물 및 내부 시설과 환경에서 제2병원은 제1병원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황이었으며, 내원 환자 및 대기 환자들의 수 역시 제1병원이 월등히 많았음.
- 농촌지역 환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 병원들의 의뢰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함. 최근에는 공해 등으로 인해 폐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방문 환자들 가운데 한국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들도 많아졌음.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 폐질환 환자 등의 사례도 있음.
- 그러나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 진단서를 신청하는 환자들도 있음. 현지 의료진은 그와 같은 환자들이 약 6~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의료비자가 신설되고, 한국-몽골 간에 90일간의 비자협정이 발효되면서 질병 치료가 목적인 경우 비자가 보다 쉽게 발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비자 문제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문제임.
- 현지 의료인들의 경우 특히 한국 의료기관 및 인력간 교류를 원하고 있음.
- 낙후된 의료장비는 몽골의료체계에서 큰 문제임. 외국의 장비 지원이 있으나 대부분 민간 개인병원이나 작동할 인력이 없는 곳에 지원되고 있음. 새로운 장비는 몽골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립병원과 종합병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제2병원 근무 간호사의 경우 초봉이 약 180,000투그릭, 경력이 쌓인 경우 약 300,000투그릭 정도임. 2009년 몽골의 1인당 GDP가 약 1,560 USD(약 1,950,000 투그릭)인 점을 감안해 보면 초봉의 경우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려움.

## □ National Life

- National Life는 독일계 보험회사로서 해외에서 근로하는 몽골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종의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음.
  - － Platinum Plan: 전세계 지역을 포함하며, 보상 상한은 연 \$1,000,000임. 거의 모든 수술과 외래서비스, 검진, 응급상황 대처, 암치료, 재활, 예방접종 등이 제공되며, 출산과 치과, 시력측정 및 안경 구입 등은 별도의 상한선이 있거나 보험료 추가 납부가 필요함.
  - － Gold Plan: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을 포함하며, 보장 내역은 Platinum Plan과 거의 동일함.
  - － Silver Plan: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며, 보상 상한은 연 \$300,000임. 외래 수술, 투약, 수혈, 응급상황 대처 등은 제한없이 보장하나, 다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음.
- 현재 National Life는 한국 내 거주 몽골인 및 한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몽골인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 내 의료기관 또는 신뢰성 있는 에이전트와의 네트워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절한 서비스 수준과 비용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
  - －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경우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보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음.
  - － 몽골인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매우 긍정적임.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몽골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비자를 발급받기가 까다로운 상황

## □ 몽골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of Mongolia)

- 1961년 최초로 건립된 국립암센터는 2008년 현재 약 80여명의 의사들과 120여명의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에는 크게 수술치료부(surgery clinic), 비수술치료부(non-surgery clinic), 외래진료부(outpatient clinic), 검사부(laboratory unit) 등 4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음.

- 2007년 현재 연인원 5,426명이 국립암센터에서 입원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외래 또는 검진을 위해 방문한 수는 약 71,000명에 이름.
- 몽골인들에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은 간암으로서 전체 암 환자의 약 40%가 해당됨. 다음으로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이며, 특히 위암 환자가 최근에는 증가추세임.
- 이로 미루어 볼 때 구체적인 수치로 잡히지는 않으나 B형 및 C형 환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몽골인들은 넓은 국토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어서 증상을 느끼고 암센터를 찾았을 때에는 말기에 이르러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몽골 정부에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WHO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Cancer prevention and control'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2013년까지 지속될 예정임.
- 한국의 암센터 및 의료기관과의 교류와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

#### □ 몽골 송도병원

- 3년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원한 몽골 송도병원은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인 의사 3명(외과의)과 몽골인 의사 26명의 의료진을 갖추고 소아과, 정형외과를 제외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음.
- 몽골에 진출한 외국병원들의 경우 몽골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진출 2년 이후부터는 의료보험 해당 요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환자수의 증가가 예상됨.
- 송도병원에 대한 몽골 현지에서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몽골 병원들이 보유한 장비에 비해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진단 실적이 매우 우수함. 또한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갑상선암 등 암수술도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
- 한국 의사들의 치료 수준에 대한 몽골인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
- 한국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들여오는 의약품은 가짜약이 많으나, 송도병원에서는 한국에서 직수입한 의약품을 사용함.
- 주 1회 울란바타르 외곽 지역과 저소득지역에 병원 버스를 이용하여 무료

방문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송도병원에서 근무하는 몽골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의료진의 초청 심포지움 정기 개최, 병원 이사장의 직접 진료(월 1회)를 시행하여 신뢰도를 높여 왔음.
- 몽골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전문의가 되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며, 의료장비 등도 낙후되어 있어서 진단 기술의 발전이 미흡함. 또한 러시아어와 몽골어로 의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영어권과의 교류가 늦어 최신 동향의 습득이나 정보 취득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의사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뇌혈관질환 등을 한국의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경우가 있음. 인하대학교 병원이 가장 적극적이며, 서울대병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편임.
- 몽골인들이 한국의료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 발급의 어려움 때문임.
- 정부 고위직의 한국 방문에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한국대사관과 외교 당국에서는 몽골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음.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3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불법 체류임.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비자 발급은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 가지 예로서, 현재 몽골은 다산(多産) 정책을 펴고 있어서 불임시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 불임시술을 받기 위해 부부가 모두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몽골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 대비 불법체류 건수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임.

#### □ 몽골 국립아동병원

- 1932년에 최초로 건립되어 1985년에 현재의 건물로 신축한 국립아동병원은 215명의 의사들과 520명의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662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매년 약 9,000명이 국립아동병원에서 출산하고 있으며, 입원서비스로 연인원 약 33,000명, 외래서비스로 연인원 약 160,000명이 이용하고 있음. 수술은 9,300건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59.5%가 소아과 수술이며, 나머지는 산부인과 수술임.
- 의료기기는 주로 일본, 독일 제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보통 러시아에서 수입하거나 몽골에서 생산하는 약을 사용함. 한국 의약품도 있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입함.
- 몽골 아동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은 호흡기질환임.
- 국립아동병원에서도 한국에 아동 환자(심장병)를 의뢰하여 보낸 경험이 있음. 특히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으나 비용 문제와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연계 방법 부재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몽골의 영아사망률은 감소추세에 있음. 그 원인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진단기술 발달, 모성과 영아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국제협력의 지원과 연계를 원함. 특히 진단 기기가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임산부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 3. 시사점

- 의료관광에 있어서 몽골은 잠재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의료관광 경쟁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우수함.
  - 한국 및 한국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문화적·인종적 동질성도 가지고 있음.
  - 몽골 의료인 및 일반인들의 경우 외국에서의 진료와 치료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특히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는 몽골 의료체계의 특성상 고위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을 것임.
- 몽골인들의 한국 방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비자 발급의 어려움이었음.

-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몽골인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몽골의 잠재 수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 일례로 몽골 송도병원이 요청하는 환자들의 의료비자 발급 신청은 예외없이 수용되고 있음. 한국에 환자를 의뢰하는 몽골의 병원, 보험회사와 한국측의 병원 및 여행 에이전트는 ‘의료관광’이라는 본래 목적 부합하는 방문이 되기 위한 보증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 몽골 병원에도 한국 입국을 위한 거짓 진단서 작성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함.
- 몽골 측의 현지 보험사와 한국 측의 에이전트(또는 협회) 사이에 환자 의뢰와 적절한 병원 및 서비스 알선 등에 대한 모형 개발이 필요함.
- 송도병원의 사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외국에 진출한 사례로 판단됨. 이와 같이 현지에서의 신뢰성 확보 노하우와 환자 유치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몽골의료체계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국내의 장비 지원과 몽골 의료인들의 한국에서의 연수·교육 주선, 몽골 아동들에 대한 초청 진료 및 현지 봉사진료 등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의료브랜드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